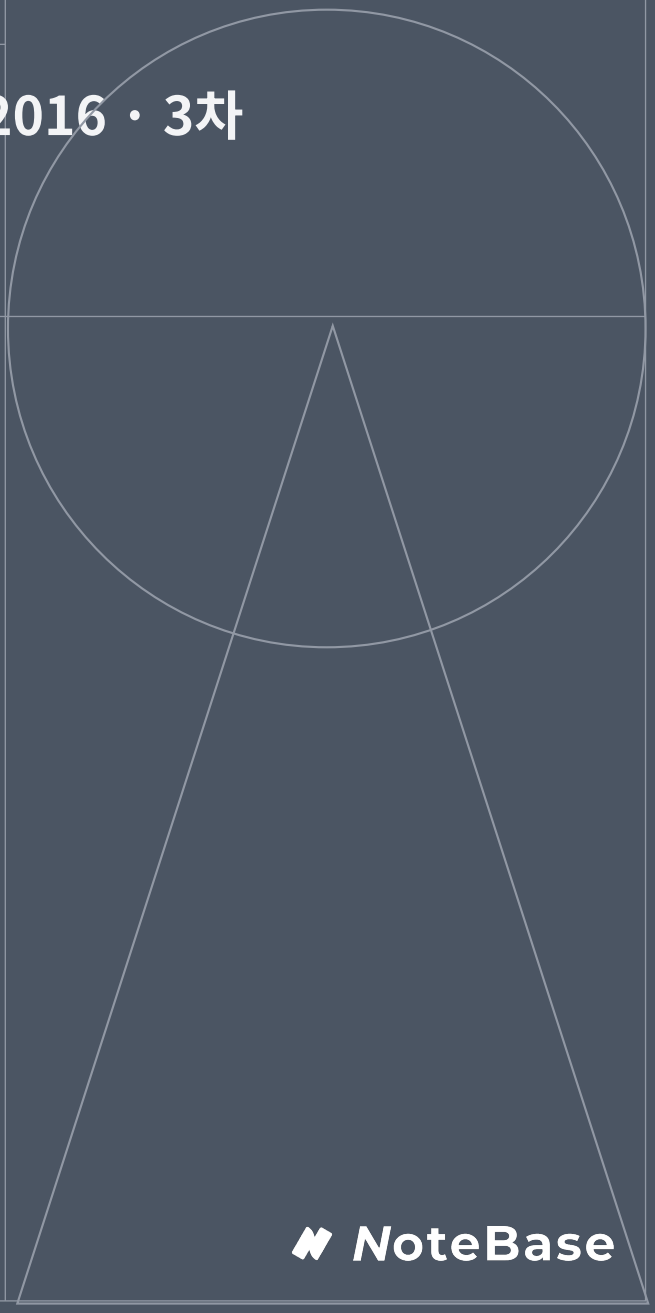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16 · 3차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16 · 3차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16 · 3차**

**문 1.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① 윗목
② 윗돈
③ 위층
④ 웃옷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위’를 뜻하는 말이 ‘윗-’, ‘웃-’, ‘위’로 나타나는 조건과 각 단어의 표준어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윗-’은 ‘아랫-’과 대립하는 뜻이 있는 말에 쓰이고, 위아래의 대립이 없는 일부 단어에는 ‘웃-’이 쓰인다. 뒤 요소가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위층’은 사이시옷을 넣지 않은 형태가 표준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윗목’은 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을 뜻하며 ‘아랫목’과 대립하므로 표준어이다.
② X — ‘윗돈’은 비표준어이다. 본래 정해진 액수보다 더 얹어 주는 돈은 ‘웃돈’이라고 쓴다. 틀린 표현 ‘윗돈’은 ‘웃돈’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위층’은 어떤 층보다 위에 있는 층을 뜻하는 표준어이다. 뒤 요소 ‘층’이 거센소리 ㅊ으로 시작하므로 ‘윗층’으로 쓰지 않는다.
④ O — ‘웃옷’은 맨 겉에 입는 옷을 뜻하는 표준어이다.

**오답 포인트**

‘윗돈’은 돈을 더 얹는다는 뜻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표준어는 ‘웃돈’이다. 또한 ‘위층’을 ‘아래층’과 대립한다는 이유만으로 ‘윗층’이라고 쓰는 것도 잘못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아랫-'과의 대립 여부를 살핀 뒤, 뒤 요소가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하는지도 확인한다. 위아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굳어진 표준어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윗목—아랫목, 웃돈—추가 금액, 위층—거센소리 앞에는 사이시옷 없음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2.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문장 중 통일성을 가장 해치고 있는 문장은?**

① 현대인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텔레비전은 계속해서 상품 광고를 내보내고, 현관이나 대문 앞에는 광고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② 그런가 하면 전봇대에까지 무엇인가를 선전하는 종이가 빼곡하게 붙어 있고, 건물 외벽의 절반 이상을 광고판이나 광고 문구가 뒤덮고 있다. ③ 이들 광고들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 현대인 치고 광고에 혹해서 제품을 사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④ 광고의 시대, 예술성 높은 광고를 감상하는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광고의 본질을 명확히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단의 중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일성은 한 문단의 모든 문장이 하나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성질이다. 이 글은 광고가 현대인의 생활 곳곳에 퍼져 있으며 정보 제공과 소비 욕구 자극이라는 영향을 미치므로 광고의 본질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현대인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는 광고가 현대인의 생활에 널리 퍼져 있다는 글의 중심 내용을 제시하므로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다. ①을 무관한 문장으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문단의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이다.

② X
전봇대와 건물 외벽까지 광고가 빼곡하다는 내용은 광고가 생활 곳곳에 넘쳐 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로 뒷받침하므로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다. ②를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문장으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①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문장이다.

③ X
광고가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불필요한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는 내용은 광고의 기능과 영향을 설명하고, 뒤의 '광고에 혹해서 제품을 산다'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므로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다. ③을 무관한 문장으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광고의 양면적 기능을 제시하는 문장이다.

④ O
'예술성 높은 광고를 감상하는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광고의 범람과 소비 욕구 자극이라는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 광고의 예술성과 감상 방법이라는 새 화제로 이동한다. 따라서 문단의 통일성을 가장 해치는 문장이다. 중심 내용에 맞게 고친다면 '광고의 영향과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가 자연스럽다.

**오답 포인트**

④에는 '광고'라는 공통 단어가 들어 있어 관련 문장처럼 보이지만, 판단 기준은 단어의 반복이 아니라 중심 내용의 뒷받침 여부이다. '광고의 예술성·감상 방법'은 앞뒤의 '광고의 범람·소비 욕구 자극·본질 파악'과 논점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반복되는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뒤, 각 문장이 그 내용을 제시·구체화·설명하는지 확인한다. 같은 소재어가 있어도 갑자기 목적이나 관점이 달라지는 문장은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통일성은 같은 단어가 아니라 같은 중심 내용으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3.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각 시대는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학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무릇 四千年이 넘는 생활의 역사를 가진 만큼 그 발전 시기마다 각각 특색을 가진 문학이 없을 수 없고, 문학이 있었다면 그 중추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가 문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 대개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성립하는 동시에 벌써 각자의 감정과 의사를 표시하려는 욕망이 생겼을 것이며, 삼라만상의 대자연은 자연 그 자체가 율동적이고 음악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시가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 ) 사람의 지혜가 트이고 비교적 언어의 사용이 능란해짐에 따라 종합 예술체의 한 부분으로 있었던 서정문학적 요소가 분화·독립되어 제요나 노동요 따위의 서정시로 발전하여 갔으리라 추측된다. ( )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문학사상 시가의 지위는 상당히 중요한 몫을 지니고 있다.

① 왜냐하면 - 그리고 - 그러므로

② 그리고 - 왜냐하면 - 그러므로

③ 그러므로 - 그리고 - 왜냐하면

④ 왜냐하면 - 그러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장 사이의 인과·첨가·결론 관계를 파악하여 알맞은 접속어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왜냐하면’은 앞의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고, ‘그리고’는 앞 내용에 관련 내용을 덧붙이며,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 낸다. 이 글의 흐름은 ‘주장→이유’, ‘발생→발전 내용의 첨가’, ‘앞선 설명→최종 결론’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첫째 빈칸 뒤에서는 시가 문학이 중추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므로 '왜냐하면'이 알맞다. 둘째 빈칸 뒤에서는 시가의 자연적 발생에 이어 서정시로의 발전을 덧붙이므로 '그리고'가 알맞다. 셋째 빈칸 뒤에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가의 중요성을 결론짓으므로 '그러므로'가 알맞다.
② X — 첫째와 둘째 접속어의 순서가 바뀌었다. 첫째의 '그리고'는 '왜냐하면'으로, 둘째의 '왜냐하면'은 '그리고'로 고쳐야 하며, 올바른 배열은 '왜냐하면-그리고-그러므로'이다.
③ X — 첫째의 '그러므로'는 뒤에 이유가 이어지므로 '왜냐하면'으로 고쳐야 하고, 셋째의 '왜냐하면'은 결론이 이어지므로 '그러므로'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배열은 '왜냐하면-그리고-그러므로'이다.
④ X — 둘째의 '그러나'와 셋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앞뒤 내용이 대립하지 않으므로 부적절하다. 둘째는 내용을 덧붙이는 '그리고', 셋째는 결론을 나타내는 '그러므로'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배열은 '왜냐하면-그리고-그러므로'이다.

### 오답 포인트

둘째 빈칸 뒤에 새로운 발전 단계가 제시된다는 이유로 전환 관계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앞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의 발생에 이어 발전 과정을 덧붙이는 문맥이므로 '그리고'가 적절하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바로 뒤 문장이 앞 문장의 이유인지, 관련 내용의 첨가인지, 앞 내용을 종합한 결론인지를 차례로 판별한다. '~때문이다'는 이유, 같은 방향의 정보 추가는 첨가, 앞선 논의를 정리한 판단은 결론의 신호이다.

### 암기 포인트

왜냐하면=이유, 그리고=첨가, 그러므로=결론이다.

NoteBase

**문 4.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가장 잘 배열한 것은?**

(가) 탈세, 특히 재계 거물들의 탈세는 국가 권력의 기초를 허무는 것으로, 심각한 반국가 행위로 다스리는 것이 옳다.
(나) 우리가 세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는 인식은 '억울하게 뜯기는 돈'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탈세자들에게도 굉장히 관대하다.
(다) 특히 재계 인사들이 탈세를 했다는 소식에는 '고래가 물을 뿜었나보다'는 정도로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 이러한 인식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 병역을 기피한 자들과 똑같은 의미에서 '조세 도피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마)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조세 피난자'라고 불러서는 안된다.

① (가) - (나) - (다) - (마) - (라)
② (나) - (다) - (가) - (마) - (라)
③ (나) - (가) - (다) - (라) - (마)
④ (나) - (가) - (마) - (다) - (라)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지시어와 접속 표현을 단서로 '일반적 인식 제시 → 구체적 사례 → 그 인식에 대한 비판 → 명칭의 부정과 대안 제시'의 흐름을 찾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나) 세금을 '억울하게 뜯기는 돈'으로 보는 일반적 인식을 제시한다.
(다) '특히'로 재계 인사의 탈세에 대한 태도를 구체화한 뒤, '이러한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한다.
(가) 탈세가 국가 권력의 기초를 허무는 반국가 행위라는 필자의 주장을 밝힌다.
(마) '그런 의미에서' 앞의 주장을 받아 탈세자를 '조세 피난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한다.
(라) '조세 피난자'를 대신하여 병역 기피자에 대응하는 '조세 도피자'라는 명칭을 제시한다.
왜 이 순서인가: (다)의 '특히'와 '이러한 인식'은 (나)의 일반적 인식을 이어받고, (마)의 '그런 의미에서'는 (가)의 판단을 이어받으며, (라)는 (마)에서 부정한 명칭의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가)를 맨 앞에 두면 (나)에서 제시한 일반적 인식과 (다)의 구체적 사례를 거쳐 필자의 주장을 도출하는 흐름이 깨진다. 틀린 배열 '(가) - (나) - (다) - (마) - (라)'은 '(나) - (다) - (가) - (마) - (라)'로 고쳐야 한다.
② O — (나)의 일반적 인식을 (다)가 구체화하고 비판한 뒤, (가)가 필자의 주장을 제시한다. 이어 (마)가 부적절한 명칭을 부정하고 (라)가 적절한 명칭을 제안하므로 문맥이 자연스럽다.
③ X — (가)가 (나)와 (다) 사이에 들어가 '특히'와 '이러한 인식'으로 이어지는 긴밀한 연결을 끊고, (라)의 대안 명칭을 (마)의 기존 명칭 부정보다 먼저 제시한다. 틀린 배열 '(나) - (가) - (다) - (라) - (마)'은 '(나) - (다) - (가) - (마) - (라)'로 고쳐야 한다.
④ X — (다)는 (나)의 인식을 '특히'로 구체화해야 하는데 (가)와 (마) 뒤로 밀려 있으며, 그 결과 (가)에서 (마)로 이어진 명칭 논의도 (다)에 의해 끊어진다. 틀린 배열 '(나) - (가) - (마) - (다) - (라)'은 '(나) - (다) - (가) - (마) - (라)'로 고쳐야 한다.

### 오답 포인트

(가)는 완결된 주장처럼 보여 첫 문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다)의 '특히'와 '이러한 인식'이 (나)를 직접 이어받는다는 점, (마)의 '그런 의미에서'가 (가)를 받아 명칭 논의로 넘어간다는 점이 배열을 결정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특히', '이러한', '그런 의미에서'와 같은 연결 표현의 선행 내용을 찾고, 그다음 문제 제시·구체화·평가·대안의 논리적 흐름을 맞춘다.

### 암기 포인트

일반 인식 (나) → 구체화·비판 (다) → 주장 (가) → 잘못된 명칭 부정 (마) → 대안 명칭 (라)이다.

NoteBase

**문 5.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한글은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② 한글은 개 짖는 소리, 학 우는 소리까지도 완벽하게 적을 수 있다.

③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을 때는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른다.

④ 현재 우리말에는 과거 몽골로부터 유입된 외래어도 포함되어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 한국어 어휘, 표기 규정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글은 우리말을 적는 문자 체계이고, 우리말은 한국어라는 언어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문자 체계인 한글 자체가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본이며,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 한국어 어휘에는 다른 언어와의 접촉을 통해 들어온 외래어도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한글은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대상은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 자체가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개 짖는 소리, 학 우는 소리까지도 완벽하게 적을 수 있다'의 '완벽하게'이다. 한글로 동물의 소리 등을 의성어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 실제 소리를 그대로 완벽하게 기록한다는 뜻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한글이 사람의 말소리를 체계적으로 적는 문자라고 해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른다'이다.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을 때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원칙을 정한다.
④ O — 고려 시대를 전후한 몽골과의 언어 접촉으로 몽골어계 어휘가 유입되었고, '수라', '보라매'와 같은 말이 오늘날 한국어 어휘에 남아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은 '한글'과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기록물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바꾸어 놓았고, ③은 한글 표기 규정과 로마자 표기 규정을 혼동하게 한다. ②에서는 가능성을 과장하는 '완벽하게'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화유산 문항에서는 등재 대상이 문자 자체인지 기록물인지 확인하고, 표기법 문항에서는 어떤 문자로 적는지를 먼저 구분한다. 외래어는 현재 쓰이는 말이라도 역사적 언어 접촉을 통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유네스코 등재 대상은 《훈민정음》 해례본, 로마자 표기의 기준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NoteBase

**문 6. 다음은 국어사전에 수록된 '막-'의 풀이이다. 밑줄 친 부분의 예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막- 【접사】
0.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거친', '품질이 낮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0.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닥치는 대로 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0. (일부 동사 앞에 붙어) '주저없이', '함부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① 막벌이
② 막국수
③ 막담배
④ 막고무신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접두사 '막-'이 결합한 단어에서 '거친·품질이 낮은'과 '닥치는 대로 하는'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막-'은 일부 명사 앞에서 '거친·품질이 낮은' 또는 '닥치는 대로 하는'의 뜻을 더한다. '막벌이'의 '막-'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한다는 뜻이고, '막국수·막담배·막고무신'의 '막-'은 거칠거나 품질이 낮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막벌이'는 일정한 직업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돈을 버는 일을 뜻하므로, 밑줄 친 의미의 예시어이다.
② X — '막국수'의 '막-'은 '닥치는 대로 하는'이 아니라 '거친·품질이 낮은'의 뜻이다. 올바르게는 '거칠게 만든 국수'의 의미로 이해한다.
③ X — '막담배'의 '막-'은 '닥치는 대로 하는'이 아니라 '품질이 낮은'의 뜻이다. 올바르게는 '품질이 낮은 담배'이다.
④ X — '막고무신'의 '막-'은 '닥치는 대로 하는'이 아니라 '품질이 낮은'의 뜻이다. 올바르게는 '품질이 낮은 고무신'이다.

**오답 포인트**

네 단어가 모두 '막-'으로 시작한다는 겉모양만 보면 뜻의 차이를 놓치기 쉽다. 특히 ②·③·④는 '닥치는 대로 하는'이 아니라 '거친·품질이 낮은'이라는 첫 번째 풀이에 해당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막-’을 뺀 명사가 행동이나 생업을 나타내면 ‘닥치는 대로 하는’의 가능성을 살피고, 물건이나 음식의 상태·품질을 나타내면 ‘거친·품질이 낮은’의 뜻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막벌이는 닥치는 대로, 막국수·막담배·막고무신은 거칠거나 품질이 낮게이다.

NoteBase

**문 7. 다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맞는 것은?**

말하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설명이다.
설명은 청자가 모르는 사실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낸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식 체계를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설명의 방법에는 지정, 정의, (㉠)와/과 (㉡), (㉢)와/과 (㉣), 예시가 있다.
지정은 가장 단순한 설명의 방법으로 사물을 지적하듯이 말하기를 통하여 지적하는 방법이다.
정의는 어떤 용어나 단어의 뜻과 개념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어떠한 대상을 파악하고자 할 때 대상을 적절히 나누거나 묶어서 정리해야 하는데,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 가면서 설명하는 (㉠)의 방법과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묶어 가면서 설명하는 (㉡)의 방법이 있다. 설명을 할 때에 서로 비슷비슷하여 구별이 어려운 개념에 대하여 그들 사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지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둘 이상의 대상 사이의 유사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일을 (㉢)(이)라 하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일을 (㉣)(이)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말하게 되면 평이한 화제를 가지고도 개성 있는 말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시는 어떤 개념이나 사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예를 직접 보여 주거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다.

① ㉠: 대조, ㉡: 비교, ㉢: 구분, ㉣: 분류

② ㉠: 비교, ㉡: 대조, ㉢: 분류, ㉣: 구분

③ ㉠: 분류, ㉡: 구분, ㉢: 비교, ㉣: 대조

④ ㉠: 구분, ㉡: 분류, ㉢: 비교, ㉣: 대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분류와 구분, 비교와 대조를 각각 묶음의 방향과 공통점·차이점이라는 기준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분류는 여러 하위 개념을 공통 속성에 따라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묶는 방법이다. 구분은 하나의 상위 개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하위 개념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이 지닌 공통점이나 유사점을 밝히는 방법이고, 대조는 대상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은 분류, ㉡은 구분, ㉢은 비교, ㉣은 대조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의 '대조', ㉡의 '비교', ㉢의 '구분', ㉣의 '분류'가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 분류, ㉡ 구분, ㉢ 비교, ㉣ 대조이다.
② X — ㉠의 '비교', ㉡의 '대조', ㉢의 '분류', ㉣의 '구분'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 분류, ㉡ 구분, ㉢ 비교, ㉣ 대조이다.
③ O —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는 것은 분류,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는 것은 구분이다. 또한 유사점을 밝히는 것은 비교, 차이점을 밝히는 것은 대조이므로 네 항목이 모두 맞다.
④ X — ㉢의 '비교'와 ㉣의 '대조'는 맞지만, ㉠의 '구분'과 ㉡의 '분류'가 서로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 분류, ㉡ 구분이다.

### 오답 포인트

'분류'와 '구분'을 일상적으로 비슷하게 사용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하위 항목을 위로 묶으면 분류이고, 상위 항목을 아래로 나누면 구분이다. 또한 비교는 유사점, 대조는 차이점에 초점을 둔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념을 묶고 나누는 방향부터 확인한다. 하위에서 상위로 묶으면 분류, 상위에서 하위로 나누면 구분이다. 대상의 공통점을 찾으면 비교, 차이점을 찾으면 대조이다.

### 암기 포인트

분류는 아래에서 위로 묶기, 구분은 위에서 아래로 나누기, 비교는 같은 점, 대조는 다른 점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중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문장은?**

① 당신은 이제 홀몸이 아니고 만삭의 몸이니까 조심해요.

② 그의 초라한 모습이 내 호기심에 불을 당겼다.

③ 이제 제법 집안일을 알은체한다.

④ 이 사건은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형태와 발음이 비슷한 어휘의 정확한 뜻과 문맥에 맞는 쓰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홀몸은 배우자나 딸린 사람이 없는 혼자의 몸을 뜻하고, 홑몸은 아이를 배지 않은 몸을 뜻할 수 있다.
불을 옮아 붙게 한다는 뜻에는 '댕기다'를 쓴다.
알은체하다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뜻이다.
유래는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내력이고, 유례는 같거나 비슷한 예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홀몸'이다. 임신하지 않은 몸을 뜻하는 말은 '홑몸'이므로 '당신은 이제 홑몸이 아니고 만삭의 몸이니까 조심해요.'로 고쳐야 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당겼다'이다. 불이 옮아 붙게 했다는 뜻에는 '댕겼다'를 쓰므로 '그의 초라한 모습이 내 호기심에 불을 댕겼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알은체하다'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뜻이다. 집안일에 관심을 두고 관여한다는 문맥에 알맞게 쓰였다.

④ X
틀린 표현은 '유래'이다. 같거나 비슷한 예가 없다는 뜻에는 '유례'를 쓰므로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홀몸-홑몸’, ‘당기다-댕기다’, ‘유래-유례’는 형태가 비슷해 뜻을 혼동하기 쉽다. 특히 ③의 ‘알은체하다’를 ‘아는 체하다’와 같은 뜻으로 오해하면 적절한 선지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만 보지 않고 문맥이 요구하는 뜻을 먼저 풀어 쓴 뒤 그 뜻에 정확히 대응하는 표제어를 고른다. 임신 여부는 ‘홑몸’, 불을 붙이는 것은 ‘댕기다’, 비슷한 전례는 ‘유례’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아이를 배지 않은 몸은 ‘홑몸’, 불은 ‘댕기고’, 비슷한 예는 ‘유례’이다. ‘알은체하다’는 관심을 보인다는 뜻이다.

NoteBase

**문 9. 조선조 실학자의 한 사람인 홍대용이 저술한 <의산문답>의 일부이다. 다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태양은 그 몸체가 지구보다 몇 곱절 큰데, 그 바탕은 (㉠)이며 그 빛깔은 붉다. 바탕이 (㉠)인 까닭에 그 본성은 따뜻하고, 빛깔이 붉기 때문에 그 빛은 밝다.
달은 그 몸이 지구보다 작으니 지구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 바탕은 (㉡)인 까닭에 그 본성은 차고, 빛깔이 맑기 때문에 태양에 비치어 빛을 낸다.
지구는 태양과 달, 그리고 금성·수성·목성·화성·토성, 즉, 칠정의 찌꺼기로 그 바탕은 (㉢)이며, 그 빛깔은 어둡고 흐리다. 바탕이 (㉢)인 까닭에 그 본성은 차고, 빛깔이 어둡고 흐리기 때문에 태양에 비치어도 밝은 빛이 적다.

① ㉠: 불, ㉡: 얼음, ㉢: 얼음과 흙
② ㉠: 불, ㉡: 얼음과 흙, ㉢: 얼음
③ ㉠: 얼음과 흙, ㉡: 불, ㉢: 얼음
④ ㉠: 얼음, ㉡: 불, ㉢: 얼음과 흙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태양·달·지구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서와 각각의 바탕을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태양은 따뜻하고 붉으므로 바탕이 불이다. 달은 차고 맑으므로 바탕이 얼음이다. 지구는 차면서 빛깔이 어둡고 흐리므로 바탕이 얼음과 흙이다. 따라서 ㉠은 불, ㉡은 얼음, ㉢은 얼음과 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 불, ㉡ 얼음, ㉢ 얼음과 흙은 지문에 제시된 태양의 따뜻함, 달의 차고 맑은 성질, 지구의 차고 어두우며 흐린 성질과 각각 일치한다.
② X — ㉡을 '얼음과 흙', ㉢을 '얼음'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달의 바탕인 ㉡이 얼음이고, 지구의 바탕인 ㉢이 얼음과 흙이다.
③ X — ㉠을 '얼음과 흙', ㉡을 '불', ㉢을 '얼음'이라고 한 대응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이 불, ㉡이 얼음, ㉢이 얼음과 흙이다.
④ X — ㉢을 '얼음과 흙'이라고 한 부분은 맞지만, ㉠을 '얼음', ㉡을 '불'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태양의 바탕인 ㉠이 불이고 달의 바탕인 ㉡이 얼음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달과 지구가 모두 차다는 공통점만 보면 ㉡과 ㉢을 바꾸기 쉽다. 달은 맑아 얼음에, 지구는 어둡고 흐려 얼음과 흙에 대응한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천체의 본성과 빛깔을 함께 본다. '따뜻하고 붉다'는 불, '차고 맑다'는 얼음, '차고 어둡고 흐리다'는 얼음과 흙으로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태양은 불, 달은 얼음, 지구는 얼음과 흙이다.

NoteBase

**문 10. 아래의 뜻풀이를 참고하여 예문의 괄호 안에 넣을 가장 알맞은 단어는?**

【뜻풀이】
경험(經驗)에 의하지 않고 순수(純粹)한 이성(理性)에 의하여 인식(認識)하고 설명하는 것

【예문】
당신 생각은( )이야, 이성(理性)에 의한 분별(分別)에만 기초하니까. 경험(經驗)도 필요한 거야.

① 사색적(思索的)
② 사유적(思惟的)
③ 사상적(思想的)
④ 사변적(思辨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한자어의 정확한 뜻을 구별하여 뜻풀이와 예문에 맞는 단어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변적(思辨的)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성격을 뜻한다. 핵심 구별어는 '경험이 아니라 순수한 이성'이다.
사색적은 깊이 생각하는 성격, 사유적은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작용과 관련된 성격, 사상적은 일정한 사상과 관련된 성격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사색적(思索的)'은 사색을 많이 하거나 깊이 생각하는 성격을 나타내므로, 경험을 배제하고 순수한 이성으로 인식한다는 뜻풀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깊이 생각하는 성격'에 해당한다.
② X — '사유적(思惟的)'은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이성의 작용인 사유와 관련된 말이므로, 제시된 뜻풀이를 정확히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사유에 관한 또는 사유하는 성격'에 해당한다.
③ X — '사상적(思想的)'은 어떤 사상과 관계되는 성격을 뜻하므로, 경험과 대비되는 순수 이성 중심의 인식 방법을 가리키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일정한 사상과 관련된 성격'에 해당한다.
④ O — '사변적(思辨的)'은 경험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이성으로 인식하고 설명하는 성격을 뜻한다. 뜻풀이와 일치하고, 예문의 '이성에 의한 분별에만 기초한다'는 문맥에도 알맞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네 단어에 모두 ‘생각’과 관련된 뜻이 있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뜻풀이의 결정적 표현은 ‘경험에 의하지 않고’와 ‘순수한 이성’이며, 이 두 표현은 ‘사변적’을 가리킨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뜻풀이에서 다른 후보와 구별되는 핵심어를 먼저 찾는다. ‘깊이 생각함’은 사색적, ‘생각하는 작용’은 사유적, ‘일정한 사상과의 관련’은 사상적, ‘경험을 떠난 순수 이성 중심의 인식’은 사변적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사변적 = 경험보다 순수한 이성에 기대어 따지고 설명하는 성격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견해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몇 년 전에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2015년 산업 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면서 2015년 국민소득 3만 5,000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보기술(IT) 등 4대 기술혁신 사업화, 제조업과 인프라 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 체제 구축, 교육 및 의료 등의 산업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산업계의 바람과 달리 일선 교육 현장에선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학 기피, 의약 등 특정 분야의 인재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제조업 중심의 국가 발전 토대가 흔들릴까 걱정된다. 포스텍 수석 졸업생이 의대에 편입학하고 지방 의대 입학생의 대학수학 능력시험 점수가 서울 명문대 이공계 입학생의 점수보다 높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주요 국립대 자퇴생의 절반 이상이 이공계 학생이며, 공대 졸업 후 취업 대신 고시촌에 몰리는 현상 등은 산업은 물론이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수 이공계 인재의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미 기업에서는 우수 이공계 출신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경영진은 물론이고 상장 제조기업의 핵심 임원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이같이 이공계 출신이 국가 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청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이공계에 진학하려면 수학, 물리학 등 배우기 어렵고 수능 점수도 올리기 힘든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빠른 과학 기술의 진보로 의학이나 법학 등에 비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대학 졸업만으로는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가 쉽지 않고, 산업현장에 배치될 확률이 높아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힘들 수 있다. 이 밖에 의료나 금융 분야보다 보수가 적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국가 차원에서는 의료나 교육 등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 인재가 이들 분야에 진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보건의료산업의 비중(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보건 및 의료 총지출 6.5%)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우수 인재의 특정분야 쏠림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 강국에서는 제조업이 전제되지 않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산업 제품을 수출해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이들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의료, 법률 등 서비스 분야만을 키워서는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청년들이 이공계 진학을 선호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 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면허제도 등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이들 분야에서 이른바 '지대 추구(rent seeking)' 행위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고 산학 공동 연구 참여자에 대한 학자금 및 생활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이공계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리더쉽 및 의사소통 교육, 산업현장 체험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학, 과학 교육의 혁신과 함께 고교 때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계를 구분하여 수학, 과학 교육을 차별화하는 것이 올바른지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수 이공계 인력이 양성되어 제조업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제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도 살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

① 의료와 법률 서비스 분야의 진입 장벽이 높아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② 현재의 수학과 과학 교육은 이공계를 기피하는 한 원인이므로 개선해야 한다.

NoteBase

③ 의료, 법학 분야보다 이공계의 지식 습득 사이클이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심하다.

④ 의료와 법률 서비스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국가발전 토대를 빠르게 개편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글쓴이가 진단한 이공계 기피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구분하고, 글 전체의 결론과 어긋나는 견해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쓴이는 우수 인재의 특정 서비스 분야 쏠림을 완화하고 이공계 진학 환경을 개선하여 제조업의 토대를 튼튼히 해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핵심은 서비스업을 제조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뒷받침할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여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글쓴이는 의료·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면허제도와 같은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지대 추구 행위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이는 해당 분야가 높은 진입 장벽으로 경쟁이 제한된 상태라는 인식과 부합한다.
② O — 글쓴이는 어려운 수학·과학 과목과 차별화된 교육이 이공계 기피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수학·과학 교육의 혁신과 계열별 차별화의 타당성 재검토를 제안한다.
③ O — 글쓴이는 이공계가 빠른 과학 기술의 진보 때문에 의학이나 법학보다 끊임없이 새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글로벌 경쟁도 치열하다고 설명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의료와 법률 서비스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국가발전 토대를 빠르게 개편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글쓴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제조업 제품의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 강국이라고 전제하며, 서비스업을 버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 인재 양성으로 제조업의 토대를 보강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답 포인트**

④에는 글의 핵심어인 '제조업'이 들어 있어 글쓴이의 견해처럼 보이지만, '서비스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향과 '빠르게'라는 속도가 본문의 주장에 없다. 본문은 제조업을 전제로 서비스업까지 함께 살리는 균형 발전을 주장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견해 일치 문제에서는 선지의 핵심 명사만 보지 않고 출발 상태, 변화 방향, 강도까지 본문과 대조한다. 본문이 '제조업 기반 강화와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말하는데 선지가 이를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전환'으로 바꾸면 글쓴이의 견해와 어긋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이 글의 결론은 서비스업의 폐기가 아니라 이공계 육성에 의한 제조업 기반 강화와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이다.

NoteBase

**문 12. 작자가 아래의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삼가 생각건대 공경을 바치고 예를 다하는 것은 임금이 이에 스승을 얻는 것이요, 어진 자를 천거하고 능한 자에게 양보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돕는 바입니다. 신이 전번에 윤명(綸命)을 받들어 오래도록 서연에서 모셨는데, 거지(擧止)가 우소(迂疏)하여 족히 잘못을 바루지 못하였고, 견문(見聞)이 거칠어서 올바르게 바루는 데에 유익함이 없었습니다. 신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데 누구를 차마 속이겠습니까? 하물며 백발은 성성하고 눈까지 어두움이리까! 귀는 허승(許丞)처럼 어둡고 팔뚝은 두자(杜子)처럼 불수가 되었습니다. 헌지(軒墀 임금을 가리킨다.)를 사모하다가 진실로 상유(桑楡)의 늦은 햇빛을 거두지 못하면, 구렁에 굴러 떨어져 송백(松柏)이 겨울에 푸른 절개에 보전하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① 나이 어린 임금에게 완곡하게 진언하기 위함

②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죄하기 위함

③ 관직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

④ 늙고 병든 신세를 하소연하기 위함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에 드러난 자기 비하와 노쇠의 호소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뒷받침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의 목적은 일부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글 전체에서 반복되는 근거가 향하는 최종 의도로 판단한다. 작자는 자신의 부족한 능력과 늙고 병든 처지를 차례로 제시하여 관직에서 물러나려는 뜻을 완곡하게 드러낸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나이 어린 임금에게 완곡하게 진언하기 위함'이다. 글은 임금에게 정책이나 행동을 바로잡도록 충고하는 내용이 아니라, 작자 자신이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고 늙고 병들었다는 점을 들어 물러날 뜻을 밝히는 내용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죄하기 위함'이다. '부끄러움을 알고'라는 표현은 사죄 자체가 목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워 사직의 명분을 제시하는 자기 비하의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관직에서 물러나려는 근거로 삼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O
'어진 자를 천거하고 능한 자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 뒤, 자신은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견문도 거칠며 백발·어두운 눈·귀와 팔의 병까지 있다고 서술한다. 이는 더 유능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관직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늙고 병든 신세를 하소연하기 위함'이다. 노쇠와 질병은 글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사직을 청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이다. 올바르게는 늙고 병든 처지를 들어 관직에서 물러나려는 뜻을 설득력 있게 나타낸 것이라고 해야 한다.

### 오답 포인트

'부끄러움', '백발', '눈·귀·팔의 병' 같은 부분적 표현만 보면 사죄나 신세 한탄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표현들은 모두 '능한 자에게 양보'하겠다는 사직 의도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글쓴이가 자신의 무능·노쇠·질병을 열거한 뒤 다른 유능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려 한다면, 개별 하소연보다 관직 사퇴라는 최종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무능과 노쇠는 근거이고, 능한 자에게 양보하려는 사직이 목적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중 외래어의 우리말 표기가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부르주아, 싱가폴, 아이샤도, 컨텐츠, 카라멜, 넌센스, 프러포즈, 아랍 에미리트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외래어는 익숙한 발음이나 철자가 아니라 외래어 표기법과 굳어진 표준 용례에 따라 적어야 한다. 제시된 여덟 표현 가운데 올바른 표기의 개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올바른 표기는 '부르주아, 아이샤도, 프러포즈, 아랍 에미리트'의 4개이다. '아랍 에미리트'는 원어의 띄어쓰기를 따른 표기이며 '아랍에미리트'처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잘못된 표기는 '싱가폴, 컨텐츠, 카라멜, 넌센스'이다. 각각 '싱가포르, 콘텐츠, 캐러멜, 난센스'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2개'는 잘못된 개수이다. 올바르게는 '4개'이다.
② X — '3개'는 잘못된 개수이다. 올바르게는 '4개'이다.
③ O — 올바른 표기는 부르주아, 아이샤도, 프러포즈, 아랍 에미리트로 모두 4개이므로 '4개'가 맞다.
④ X — '5개'는 잘못된 개수이다. 올바르게는 '4개'이다.

**오답 포인트**

실제 발음에 익숙한 '싱가폴, 컨텐츠, 카라멜, 넌센스'를 맞는 표기로 착각하기 쉽다. 특히 '넌센스'는 널리 쓰이지만 규범 표기는 '난센스'이므로, 이 네 표현을 모두 제외해야 정답인 4개가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표현을 하나씩 표준 표기로 고친 뒤, 고칠 필요가 없는 표현만 센다. 이 문제에서는 싱가폴→싱가포르, 컨텐츠→콘텐츠, 카라멜→캐러멜, 넌센스→난센스로 고쳐지므로 나머지 4개가 올바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싱가포르·콘텐츠·캐러멜·난센스가 바른 표기이다. 부르주아·아이섀도·프러포즈·아랍 에미리트는 그대로 맞다.

NoteBase

**문 14. 다음 중 그 용어 해설이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미역국을 먹었다'처럼 관습적으로 굳어진 말을 '속담(俗談)'이라 한다.

②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에 따라 분화하는 방언을 '사회방언(社會方言)'이라 한다.

③ 특정 집단이 외부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숨길 목적으로 쓰는 말을 '속어(俗語)'라 한다.

④ 사람들이 불쾌감이나 공포 때문에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말을 '완곡어(婉曲語)'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관용어·속담·사회 방언·은어·속어·금기어·완곡어의 정의와 구별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용어는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원래 뜻과 다른 특별한 뜻으로 굳어진 표현이고, 속담은 교훈이나 풍자를 담아 민간에 전승되는 간결한 말이다.
사회 방언은 연령·성별·직업·사회 계층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말이다.
은어는 특정 집단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쓰는 말이고, 속어는 통속적으로 널리 쓰이는 비격식적이고 품위가 낮은 말이다.
금기어는 불쾌감이나 두려움 등으로 사용을 꺼리는 말이고, 완곡어는 거북하거나 직접적인 표현을 부드럽고 간접적으로 바꾼 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미역국을 먹었다'는 낙방하거나 실패했다는 뜻으로 굳어진 관용어이다. 틀린 표현은 '속담'이며, 올바르게는 '관용어'라 한다.
② O — 연령, 성별, 직업, 사회 계층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분화한 말은 사회 방언이다.
③ X — 특정 집단이 외부인에게 내용을 숨기려고 쓰는 말은 은어이다. 틀린 표현은 '속어'이며, 올바르게는 '은어'라 한다.
④ X — 불쾌감이나 공포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말은 금기어이다. 틀린 표현은 '완곡어'이며, 올바르게는 '금기어'라 한다. 완곡어는 금기어나 거북한 표현을 부드럽게 대신하는 말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굳어진 말'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관용어와 속담을 혼동하게 하고, ③은 특정 집단이 쓰는 비밀어인 은어를 비격식적인 속어와 바꾸어 놓았다. ④는 사용을 피하는 대상인 금기어와 그 말을 부드럽게 대체하는 표현인 완곡어를 혼동하게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별한 뜻으로 굳어진 표현이면 관용어, 교훈·풍자가 담긴 전승 표현이면 속담, 사회적 조건에 따른 말의 차이면 사회 방언으로 판단한다. 집단 내부의 비밀성이 핵심이면 은어, 비격식성과 통속성이 핵심이면 속어, 꺼리는 말 자체이면 금기어, 이를 부드럽게 바꾼 말이면 완곡어이다.

**암기 포인트**

은어는 숨기는 말, 속어는 통속적인 말, 금기어는 피하는 말, 완곡어는 돌려 말하는 표현이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어느 신문의 독자 투고 글이다. 이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피땀 어린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 결실로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렀고 경제 성장률 또한 세계 16위에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국민성은 어떠할까. 아직도 차량 문틈 사이로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기는커녕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일삼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거리낌없이 무단횡단을 하는 아주머니들을 볼 때면 착잡한 마음마저 들기도 한다.
물론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기초 질서 정신이 자리 잡지 않고는 올바른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무질서라는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지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 우리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① 경제 성장에 비해 국민성이 낮아 걱정이다.

②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③ 기초 질서 정신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④ 기초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많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글에 언급된 내용과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구별하여 내용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용 일치 판단에서는 어떤 문장이 글에 등장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글쓴이가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경제 성장에 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미봉책일 뿐이며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기초 질서 정신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은 경제 성장의 성과를 제시한 뒤 무질서한 행동의 여러 사례를 들며 국민성에 대한 걱정을 드러낸다. 따라서 경제 성장에 비해 국민성이 낮아 걱정이라는 내용은 글과 일치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이다. 글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으로 본다. 올바르게는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기초 질서 정신이 자리 잡아야 올바른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③ O — 글은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 우리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기초 질서 정신이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④ O —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 방치, 고성방가, 경찰관에 대한 욕설, 무단횡단 등 기초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의 사례를 연이어 제시한다. 따라서 기초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은 글과 일치한다.

### 오답 포인트

②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본문에 실제로 등장하므로 일치하는 내용처럼 보인다. 그러나 글쓴이는 이를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므로, 이를 글의 해결책으로 바꾼 ②는 글의 취지와 반대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선지의 핵심어를 본문에서 찾은 뒤, 그 내용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까지 대조한다. 특히 '하지만', '불과하다', '~지 않고는'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글쓴이의 최종 주장을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본문에 나온 말이라도 글쓴이가 부정한 수단이면 글의 주장으로 볼 수 없다. 이 글의 대비는 '단속·처벌은 미봉책, 기초 질서 정신과 작은 실천은 근본책'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예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예문】
너는 학생이므로 그 위험한 일에서 한발 비켜서야 한다.

① '너'와 '그'는 문장 성분은 다르지만 품사는 같다.
② 이 문장은 11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③ '한발'은 '한ᵛ발'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④ '위험한'과 같은 품사의 예로, '헌 물건'의 '헌'을 들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장 성분과 품사를 구별하고, 조사까지 각각 한 단어로 세어 단어 수를 판단하며, 문맥에 맞는 띄어쓰기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품사는 단어를 형태와 기능에 따라 나눈 갈래이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맡는 역할이다. 따라서 같은 문장 성분이라도 품사가 다를 수 있고, 품사가 같아도 문장 성분은 다를 수 있다.
단어 수를 셀 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지만 독립된 단어로 센다. 어미는 단어로 따로 세지 않는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너’는 주어이고 ‘그’는 ‘위험한 일’을 꾸미는 관형어이므로 문장 성분은 다르다. 그러나 ‘너’의 품사는 대명사이고 ‘그’의 품사는 관형사이므로 품사도 다르다. 틀린 표현은 ‘품사는 같다’이며, 올바르게는 ‘문장 성분과 품사가 모두 다르다’이다.

② O
단어를 품사 단위로 나누면 ‘너/는/학생/이므로/그/위험한/일/에서/한발/비켜서야/한다’의 11개이다. ‘는’, ‘이므로’의 ‘이-’, ‘에서’와 같은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지만 각각 한 단어로 세고, 어미는 따로 세지 않는다.

③ X
이 문장에서 ‘한발’은 ‘한 걸음 정도’를 뜻하는 명사이므로 붙여 쓴다. 틀린 표현은 ‘한 발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이며, 올바르게는 ‘한발 비켜서야’이다.

④ X
‘위험한’은 형용사 ‘위험하다’의 활용형이지만, ‘헌 물건’의 ‘헌’은 뒤의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이다. 틀린 표현은 ‘같은 품사’이며, 올바르게는 ‘위험한은 형용사이고 헌은 관형사이다’이다.

### 오답 포인트

①은 문장 성분이 다르다는 앞부분만 보고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②는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과 품사 단위인 단어를 혼동하면 8어절을 8단어로 잘못 세기 쉽다. ④는 두 말이 모두 명사를 꾸민다는 기능만 보고 형용사의 활용형과 관형사를 같은 품사로 착각하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말을 품사와 문장 성분으로 따로 분석한다. 단어 수는 조사도 한 단어로 포함하고 어미는 제외해 센다. 띄어쓰기는 문맥 속 의미를 확인하여 사전에 한 단어로 굳어진 말인지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너’는 대명사·주어, ‘그’는 관형사·관형어이다. 조사는 단어 수에 포함하고 어미는 포함하지 않으며, 이 문맥의 ‘한발’은 붙여 쓴다.

NoteBase

**문 17. 다음의 밑줄 친 '비'의 속성이 나머지 셋에 비해 가장 이질적인 것은?**

① 비가 옵니다. / 다정한 손님같이 비가 옵니다. / 창을 열고 맞으려 하여도 / 보이지 않게 속삭이며 비가 옵니다. // 비가 옵니다. / 뜰 위에, 창 밖에, 지붕에, / 남모를 기쁜 소식을 / 나의 가슴에 전하는 비가 옵니다.

② 길고 눈부신 바늘처럼 / 비는 또 내 / 얼굴에 꽂힌다. / 수백 쌈의 바늘이 쏟아져 / 정수리와 명치, 오금에 / 팽팽하게 박힌다. // 죄인처럼 묶여 / 빳빳하게 침(針)을 꽂고 서 있는 / 나 // 단죄.

③ 짐을 매어 놓고 떠나려 하시는 이 날, / 어둔 새벽부터 시름없이 내리는 비. / 내일도 내리오소서 연일 두고 오소서. // 잡았던 그 소매를 뿌리치고 떠나신다. / 갑자기 꿈을 깨니, 반가운 빗소리라. / 매어 둔 짐을 보고는 눈을 도로 감으오.

④ 비는 고요한 노래를 불러 / 벚꽃 향기 풍기는 황혼을 데려온다. // 비는 어디서 자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 순이 우리가 촛불을 가지고 마주 앉을 때 // 비는 밤 깊도록 창밖에서 종알거리다가도 / 이윽고 아침이면 어디론지 가고 보이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같은 소재인 '비'가 각 작품에서 어떤 정서와 기능을 지니는지 비교하는 문제이다. ①·③·④의 비는 화자에게 반갑고 친화적인 대상이지만, ②의 비는 고통과 단죄를 가하는 위협적인 대상이다.

**핵심 개념**

시적 소재의 속성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소재를 묘사하는 표현과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판단한다. 이 문항에서는 '손님·기쁜 소식·반가운 빗소리·고요한 노래'가 친화적 속성을, '바늘·죄인·단죄'가 고통스럽고 징벌적인 속성을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다정한 손님', '기쁜 소식'에서 비는 화자에게 기쁨을 전하는 반갑고 친화적인 존재이다. 나머지 셋과 이질적인 비가 아니라 ③·④와 같은 긍정적 속성의 비이다.

② O
비를 '눈부신 바늘'에 비유하고, 화자를 바늘에 찔린 '죄인'으로 제시한 뒤 '단죄'라고 마무리한다. 따라서 이 비는 화자에게 고통과 형벌을 가하는 위협적인 존재로서 나머지 셋과 가장 이질적이다.

③ X
화자는 떠나려는 이를 붙잡기 위해 비가 계속 내리기를 바라며, 꿈에서 깬 뒤 빗소리를 '반가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비는 이별을 늦추어 주는 반가운 존재이므로 ②처럼 징벌적인 비가 아니다.

④ X
비는 '고요한 노래'를 부르고 '종알거리'는 존재로 의인화되어 황혼을 데려온다. 이 비는 화자 곁에 머무는 평화롭고 친근한 존재이므로 ②와 달리 ①·③의 비와 유사하다.

**오답 포인트**

③에는 '시름없이', '떠나신다'처럼 쓸쓸한 분위기의 말이 있어 비까지 부정적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화자가 비를 '반가운' 것으로 여기고 계속 내리기를 바란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반면 ②는 '바늘', '죄인', '단죄'가 모두 고통과 징벌의 의미를 강화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같은 시적 소재를 비교할 때에는 소재 주변의 비유와 수식어, 화자의 반응을 함께 묶어 긍정·부정의 정서 방향을 판단한다. 이 문항에서는 ①·③·④의 반가움·친근함과 ②의 고통·징벌이 대립한다.

**암기 포인트**

① 손님, ③ 반가운 빗소리, ④ 고요한 노래는 친화적 비이고, ② 바늘과 단죄는 징벌적 비이다.

NoteBase

**문 18. “청소년 야간 통행 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한다. 다음 표에서 그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끼리 가장 잘 짝지은 것은?**

㉠ 청소년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통행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수의 법률들이 이미 존재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내용이 ‘청소년 야간 통행 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근거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장의 근거는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이 문항에서는 야간 통행을 제한할 필요성이나 그로써 얻는 보호 효과를 보여 주면 찬성 근거가 되고, 기본권 침해나 기존 법률만으로 충분하다는 내용은 반대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의 범죄 증가와 ㉢의 유해 환경 노출은 법 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은 통행의 자유 침해를 지적하고 ㉣은 기존 법률만으로 청소년 보호가 충분하다고 하므로, 둘 다 새 법 제정에 반대하는 근거이다. 틀린 짝은 ‘㉡, ㉣’이며, 찬성 근거끼리의 올바른 짝은 ‘㉠, ㉢’이다.
② X — ㉠은 청소년 범죄 증가를 들어 규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지만, ㉡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여 법 제정에 반대하는 방향이다. 틀린 항목은 ㉡이며, 이를 ㉢으로 바꾸면 ‘㉠, ㉢’이 된다.
③ O — ㉠은 청소년 범죄의 증가를 억제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근거이고, ㉢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이므로 둘 다 야간 통행 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방향이다.
④ X — ㉢은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지만, ㉡은 통행의 자유 침해라는 부작용을 들어 법 제정에 반대한다. 틀린 항목은 ㉡이며, 이를 ㉠으로 바꾸면 ‘㉠, ㉢’이 된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과 ㉣도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주제와 관련 있다는 것만으로 찬성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을 침해한다’와 ‘기존 법률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표현은 새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약화하므로 반대 논거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주장문의 찬성·반대 방향을 확정한 뒤, 각 근거가 그 주장의 필요성·효과를 강화하는지 또는 문제점·불필요성을 드러내는지 판단한다. 관련성뿐 아니라 주장과 근거의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 암기 포인트

필요성·효과는 찬성 근거, 침해·불필요성은 반대 근거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무는 역두에서 너를 보냈다.
비애야!

개찰구에는
못 쓰는 차표와 함께 찍힌 청춘의 조각이 흩어져 있고
병든 역사(歷史)가 화물차에 실리어 간다.

대합실에 남은 사람들
아직도
누굴 기다려

나는 이곳에서 카인을 만나면
목놓아 울리라.

거북이여! 느릿느릿 추억을 싣고 가거라
슬픔으로 통하는 모든 노선(路線)이
너의 등에는 지도처럼 펼쳐 있다.
- 오장환, 〈The Last Train〉

① '못 쓰는 차표'와 '청춘의 조각'을 병치함으로써, 청춘이 되돌아 올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낸다.
② 화물차가 떠난 후에도 '대합실에 남은 사람'은 화자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카인'은 비애를 보낸 후에도 남은 죄의식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화자의 '비애'를 보냄으로써 겪는 해방감을, '목 놓아 우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어의 상징적 의미와 화자의 정서를 시의 전체 흐름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시어의 의미는 사전적 뜻만으로 정하지 않고, 앞뒤 시구와 정서의 흐름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이 시에서 화자는 '비애'를 떠나보내려 하지만 '목놓아 울리라', '추억', '슬픔' 등의 표현을 통해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드러낸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못 쓰는 차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 ‘청춘의 조각’은 지나가 버린 젊은 시절을 나타낸다. 두 시어를 함께 제시하여 지나간 청춘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상실감을 드러낸다.
② O — ‘대합실에 남은 사람들’에는 떠나지 못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화자의 처지도 투영되어 있다.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직접 말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 속에 포함해 바라본다는 점에서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③ O — ‘카인’은 죄를 지은 성서의 인물을 환기하므로 죄의식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자는 비애를 보낸 뒤에도 카인을 만나면 울겠다고 하여 마음속에 남은 죄의식과 슬픔을 드러낸다.
④ X — 틀린 표현은 ‘해방감’이다. ‘목놓아 울리라’는 비애를 보낸 뒤 얻은 후련함이 아니라, 비애를 떠나보내려 해도 여전히 남아 있는 슬픔과 죄의식이 격하게 표출되는 모습이다. 올바르게는 ‘화자의 비애를 보낸 뒤에도 지속되는 슬픔을 목 놓아 우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야 한다.

### 오답 포인트

첫 행의 ‘너를 보냈다’만 보면 화자가 슬픔을 떨쳐 내고 해방되었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뒤의 ‘목놓아 울리라’와 ‘슬픔으로 통하는 모든 노선’은 비애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자의 정서를 묻는 선지는 한 구절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시 전체에서 반복되는 정서어와 행동을 함께 확인한다. ‘보냈다’보다 뒤이어 제시되는 ‘울리라’, ‘추억’, ‘슬픔’이 지속되는 비애를 결정하는 근거이다.

### 암기 포인트

보냈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목놓아 울리라’는 해방이 아니라 남아 있는 비애의 표출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우리말 표현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는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다.

② 이곳에 주차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③ 행정 당국은 위험 지역을 신속하게 재점검하고 긴급 대책을 펴야 한다.

④ 각 지역에 설치된 은행은 혈관이고 중앙은행은 마치 심장 구실을 한다.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주어·목적어·서술어의 호응과 어휘의 관용적인 결합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문장 성분의 호응은 주체, 대상, 서술어가 문법적으로 알맞게 연결되는 것이다. 어휘의 관용적 결합은 '대책을 세우다', '정책을 펴다'처럼 실제로 자연스럽게 함께 쓰이는 말을 뜻한다. 비유가 이어질 때에는 대응하는 표현의 형식도 맞추어야 한다.

### 선지별 해설

① O. '국회 본회의가 열리다'와 '이 문제가 거론되다'의 주어·서술어 관계가 자연스럽고, '때마다'와 '빠지지 않고'도 뜻이 어긋나지 않는다.
② X. 틀린 부분은 '주차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니'이다. '부과하다'의 대상을 나타내려면 '사람에게는'을 써서 '이곳에 주차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니 주의하기 바란다'로 고치거나, 피동 표현으로 '이곳에 주차하는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기 바란다'로 고친다.
③ X. 틀린 부분은 '긴급 대책을 펴야 한다'이다. '대책'은 세우거나 마련한다고 표현하므로 '행정 당국은 위험 지역을 신속하게 재점검하고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로 고친다.
④ X. '은행은 혈관이고'와 '중앙은행은 마치 심장 구실을 한다'는 비유의 대응 형식이 서로 달라 병렬 관계가 어색하다. 또한 은행이라는 기관을 세운다는 뜻에는 '설립되다'가 자연스럽다. '각 지역에 설립된 은행은 혈관 구실을 하고 중앙은행은 심장 구실을 한다'로 고친다.

### 오답 포인트

뜻이 대강 통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②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을 주어처럼 제시했고, ③은 '대책'과 '펴다'를 잘못 결합했으며, ④는 혈관과 심장의 비유 형식을 나란히 맞추지 않았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하는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관계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명사와 서술어가 관용적으로 자연스럽게 결합하는지, 나란히 놓인 표현의 형식이 서로 대응하는지를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과태료는 사람에게 부과하고, 대책은 세우며, 병렬된 비유는 같은 형식으로 맞춘다.

NoteBase